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4시02분 개회)

○의정팀장 박애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애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 제3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안건 상정, 도건위 출장계획 심사, 문경위 출장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지 못하시고 계신 000 위원장님은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회의가 마치고 여기 회의장에 입실하시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000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문화경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이 두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출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000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하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회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제1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등 선진사례 연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건입니다. 계획서상 공무국외출장 필요성, 방문국가,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격성 등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지역 현안 해결과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목적에 맞는 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반갑습니다. 순천시의회 우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입니다.

심사번호 제1호 앞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및 선진사례 연수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최병배, 양동진, 서선란, 강형구, 이향, 우성원, 오행숙, 이복남 의원님 8명과 상임위 직원 2명 우리 이태문 과장님, 송병권 주무관님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총 10명이며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각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방문하는 계획입니다.

연수목적은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경험하고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및 2033년의 정원박람회를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통해 시민, 관련 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공유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방문지 구성은 쓰레기소각장, 정원박람회, 친환경 도시조성 및 도시재생 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과 관련된 곳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인천공항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2일차에는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및 슈테판 광장을 방문하여 친환경적 소각장 및 도시 조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3일차에는 과거 가스 공급시설로 사용되다가 주상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가소메터시티에 방문하여 혐오시설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4일차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체코로 이동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크로메르지시 정원에 방문하여 우리시의 오천그린광장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5일차에는 크로메르지시에서 프라하로 이동하여 체코 최대규모의 하수처리장인 프라하 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6일차에는 프라하 트램 및 자전거 연계 교통 시스템을 체험하고 프라하 아이즈 도시재생 사례지를 방문하여 건축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에 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합니다.

7일차에는 체코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팔젠 필스너 우르켈 맥주공장 및 독일의 마르크트 광장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8일차에는 도시재생의 선진사례인 하이델베르크 친환경 패시브하우스 주택마을을 방문하고, 세계 3대 정원박람회로 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독일연방 정원박람회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9일차에는 프랑크푸르트 뢰머광장 및 비스바덴 중앙하수처리장을 견학하여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및 하수 처리의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프랑크푸

르트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일정입니다. 10일차에는 인천공항에서 순천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진사례를 통해서 우리시와 접목 가능한 것은 접목하도록 집행부와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000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도건위에서 선진지 국외출장을 두 번째 가는 거죠?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가고 올해...

○위원 000 작년하고... 아, 벌써 그게 작년인가요? 12월이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차이도 없는데 꼭 작년이라고...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래도 2022년도고 23년도라 또 틀립니다.

○위원 000 유일하게 지금 두 번째 가는 것 같은데요, 도건위만.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 000 여기에 보니까 주로 소각장, 가스처리장 이런 시설들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12월에 가면서 소각장 일본하고 싱가포르인가요?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싱가포르.

○위원 000 그쪽에 가서 견학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가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어이 가서 보고 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도건위 소관에서 저희들이 선진문화를 많이 저희들이 몸소 체험을 하면서 보고 이런 견학을 통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접목을 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소각장이 가장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로 큰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선진사례를 한번 보고 더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000 소각장이 지금 말을 들어보면 올 6월 말까지 그 입지를 결정을 한다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디 선정... 그 추진이나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한 그런 곳은 있나요?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아마 6월까지 해서 발표될 건데, 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실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가 그렇게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비밀로 좀 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한 곳 정도, 아, 두 곳 정도 얘기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000 아무튼 간에 가시게 되면 잘 다녀오시고 위원님들한테 맥가이버 칼이라도 하나 써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그것은 꼭 한번 하도록 한번 해 보려 합니다.

○위원장 000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여기 보면 출장동기 내용에 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사례 등 해외 우수사례를 우리시 접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정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교통시스템, 뭐 도시재생 이런 게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 6월 26일 코스에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에 하나가 들어 있는데 이 하나를 보고 나서 우리 순천시하고 연계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정원이 오천그린광장 그런 데가 독일정원을 많이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 000 그랬을 때 그럼 여기 하고, 이미 독일 형식의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지와 또 이 정원박람회라고 어떤 것을 우수사례가 여기 일정표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 독일 연방 국제정원박람회하고 체코의 크로메르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우리 순천시의, 지금 그분들은 200년 전에 정원이 만들어졌

지 않습니까. 그런 정원을 저희들이 그대로 답습보다는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현장에서 체험을, 그런 사례를 봐서 그것을 우리 순천시의 오천광장과 이런 데에 전부 다 접목을 한번 해볼까....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곳을 안 가봤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사후활용이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가를 한번 보도록 꼼꼼히 따져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지금 이 방문한 도시들은 유럽 여행을 하면 다들 가보는 좀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섞여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구를 찾아봤더니 그래도 다행히 비스바덴이라든지, 비스바덴은 인구가 29만 정도 되니까 우리 순천시 정도 규모라서 규모 면에서는 좀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는 인구가 한 17만 정도 되네요.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성이 있어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순천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정도 규모의 도시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도시에 가서 보는 것은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후진국인 셈인데 그쪽이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고요. 그 부분만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체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됐고 저희들이 실은 체코는 독일을 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곳을 진짜 제가 한번 가봤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지만 가보지도 않고 해서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수 끝나고 저희들이 연수 방문 사례지를 발표할 때 그때 정확하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000 예, 알겠습니다.

○위원 000 000입니다.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외연수를 계속하고 해외 선진지를 자주 가면요.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굉장히 종합적으로는 보이는데 실제

돌아와서 보면 이게 뭔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정 방향에 뭔가를 참고한다고 그럴 때 방향성이 없는 의견들을 내놓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획서를 보고 드리고 싶은 부탁 하나는 가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가고 뭘 가고 그러면 어떤 그 방향에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오겠다 이런 방향들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가서야 나중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더 많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가서 그냥 이런저런 폭넓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다 물어보고 오면 실제로 좋은 데는 보고 왔는데 돌아와서 의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지에 가셨을 때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에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의견을 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싱을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보는 방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순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걸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더 한번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000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나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다 도시가 유명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물론 연수의 목적이 이런 시설을 보러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시면 그 도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자칫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비취질 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의 명소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빠지지 않고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음악가의 묘지인가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돌아올 때 마지막 비행기 타는 곳이 지금 프랑크푸르트인데 여기에도 괴테의 생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한번 빠지지 않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더 나은 선진사례의 이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정말 선진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000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갔다 와서 보고를 잘 한다고 그러니까... 잘 보고 오셔서 보고가 정말 알찬 보고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000 아무튼 간에 그리고 원래 시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위원 000 예, 있습니다.

○위원 000 원래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서 자기 돈까지 내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위원장 000 원래 1인당 얼마가 1년에 정해져 있죠?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1년에 저희들이 320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000 그래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갈 수 있고 더 들면 자부담을 하고 그러시는 거죠?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320 외에는 100%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000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이번에 좀 가시면, 저번에 쓰레기 소각 문제의 처리시설 방식을 뭘로 할 것인가를 이렇게 주안점으로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그 쓰레기 제로화 만들기 관련해서 네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각방식 외에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방안에 관련해서 처리방식, 그 공장 가동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교육하고, 실천활동을 하는지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하여간 시민들이 그쪽 나라의 도시에서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쓰레기가 소각장까지 들어가게 된 동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한번 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쓰레기를 많이 지금 재활용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보다는 일단 선진국가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 있는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000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 000 이상입니다.

○위원장 000 여기 지금 비엔나라고 적혀 있는데 현지에 가면 비엔나라고 스펠링 쓰는 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wien, 빈.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장 000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이동하는 교통편은, 현지 이동 교통편은 정해져 있으신가요?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지금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이동은 전부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버스로 다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올 때만, 저희들이 일단 오스트리아로 비행기로 가 가지고 그 안에서는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000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기관 방문의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데요. 다녀오시는 게 결국 시의 어떤 정책이나 시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위원 000 그런데 기관방문할 때 대개 기관 담당자들 얘기만 들어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못 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 방문할 때 저는, 교육기관 방문할 때는 되게 학생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시면 기관 담당자들 말고 또 현지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통한 의견 수렴도 좀 같이 해 오시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저희 가이드에게 지역 주민들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열어주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000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공무 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보면 맨 아래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을 보면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확인했는가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그것은 좀 놓친 것 같

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000 5월 6일 기준으로 WTO에서 발표를 했어요. WTO에서 코로나19의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해제되었다고 그렇지만 의료 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해요. 또 거기 주변국 상황이나 이런 게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또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대비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 000 아이, 건강까지 챙겨주시다니...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정말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강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 000 순천 시민들의 또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신 의원들이시잖아요. 건강하셔야죠.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000 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지금 그것은 안 잡혀는 있습니다.

○위원장 000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앞으로 그러려면 아마 그쪽의 여행사나 이런 데서 통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마 그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갈 때는 그쪽에 의회하고도 조금 접촉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그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가이드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꼭 잡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000 현지 해설사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 000 동행하지 않아요?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아니요, 동행합니다.

○위원 000 현지 해설사가 설명을 다 잘 해줍니다.

○위원장 000 그런데 이제 저도 외국여행을 가서 보면 현지에 있는 한국 분들이 나와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생들이 하는 경우에도 보면 통역을 잘 못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피할 겁니다, 아마. 그러려면 상당히 사전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그거는 여행사하고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까.

○위원장 000 우리 심심치 않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위원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들 조금씩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출장을 가신 당사자들은 더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더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거론된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반영되는 그런 계획을 탄탄히 하셔서 그래서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의결이 안 됐는데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제가 잠깐 착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배 위원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병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000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000 아니 제가 의사진행을 좀 서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요.

안건이 심사 의결은 개별 의결서에 서명하신 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의결서에 가부를 결정하여 서명하신 후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의 집계를 위해서 정회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000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제1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등 선진사례 연수 심사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의결서를 취합한 결과 찬성위원 8분, 반대 의견 없고요. 그래서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도건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제1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등 선진사례 연수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호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 구축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공무원 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원외출장 조례 제14조 2항에 따라 공무원외출장을 마치고 의장에게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6박 9일간 문화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하여 활동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저희 의원들의 뜻깊은 연수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소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공무원외출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개요입니다.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6박 9일간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말뫼와 예테보리를 의원 포함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무원의 출장목적은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표적인 탄소 중립도시 실천도시 우수사례와 열병합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주요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미텔그룬덴 해상풍력단지, 아마게르 바케 열병합발전소, 코펜헐, 말뫼시립도서관, 미디어에볼루션시티 국립과 학관 등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접목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텔그룬덴해상풍력단지는 코펜하겐 세계 최대 풍력단지입니다. 풍력단지 설치 시 주요쟁점 사항은 환경적 문제, 소음 문제, 폐기물 처리, 전자기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텔그룬덴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민간과 시민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밑에서 위로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초 27개를 3줄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3줄로 만들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외관 선호도 등을 조사해 한줄 20개로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3줄로 설치를 했을 때와 1줄로 설치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니까 미관상 확연한 차이가 났고요.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갈등해결을 위해 풍력발전단지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시설을 보여주고, 어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어업 수익 등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 접목사항입니다.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설치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개를 20개로 설치한 사례 등을 참고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흔히들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이

라든지 전자기장 등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는 면밀한 사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부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든지, 풍력단지 반경 해당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인센티브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풍력발전소 근처에 소음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보셨던 교수님께서 멍크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 풍력단지 인근에서 멍크를 키우고 있다는 말을 또 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덴마크 시청사입니다. 덴마크 시청사는 보행자만의 광장으로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작가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안데르센 동상과 1층에는 결혼식장도 있고요. 시청청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접목사항으로는 안데르센 동상이 있어 시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긍심과 유명한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티볼리 놀이동산도 있고요. 우리 시도 지금 시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시청사광장 등 순천의 자량이 될 수 있는 상징물을 발굴해 배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경위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상징하는 팔마비를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는 그 광장에도 들이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설문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도 시청사와 연계해 시민광장 등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 시청사처럼 보행자만의 광장으로 시청사와 시민광장이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시청을 둘러싼 건물들 역시 저녁에는 독특한 야경을 자랑하듯이 우리 순천시청뿐 아니라 주변 건물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조성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노드하운 신도시입니다. 노드하운 신도시 프로젝트는 코펜하겐 신도시 개발지구 중 한곳이자 현재 스칸디나비아가 가장 큰 신도시 개발지구입니다. 도시개발의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탄력적인 지속가능한 도시가

목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통해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주안점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뒀습니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새로 개발한 곳과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을 보존해 이질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접목사항입니다. 노드하운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분도시'라는 개념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또한, 도시구조 계획에 있어 역사성을 고려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대학, 주민과 소통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도시 기반시설 계획 시에 자원소비나 폐기물 생산 및 환경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도시'의 개념을 도입해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등 조화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8하우스, 신개념 아파트로 저층부에 상가와 카페, 사무실이 있고 상부에 주택이 배치된 복합 아파트입니다. 잔디녹화를 이용한 옥상녹화로 여름철에는 열기를 식혀주고 겨울에는 보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채광을 높인 건물 설계뿐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방문했을 때는 이런 문화공간도 사용하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앞에 잔디광장에서 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노는 곳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보면 저희 오천그린광장이 좀 생각나기도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우리 시 접목사항입니다. 단지 내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 설계로 마을 공동체 실현 등 이상적 주거환경

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평형한 길로 이어져 자전거나 휠체어 이용 등이 좀 용이했고요. 건물 외벽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공동주택입니다.

우리시도 시가 조성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건립 시 8하우스 사례를 참고하여 직접 짓거나 민간에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오고 있는 주택시설은 커뮤니티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입주자들 역시 그 부분을 입주를 선택하는 데 큰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설계 시 동선을 고려해서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게르바케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우리에게도 흔히 코펜헬로 알려졌는데요. 아마게르바케는 5개 지자체와 독일, 영국 등 인근 나라의 폐기물을 태워 전기와 열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900년 초부터 병원에 열 에너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재활용센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시설 안에 들어와서 직원 분께서 의원들 및 직원들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마게르바케 열병합발전소 오염물질 허가 기준으로 보면 EU제한선보다 낮고 환경문제와 관련해 탄소채집 100%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등 배출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사점과 접목사항입니다. 소각장이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게 녹색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아마게르바케는 건축 디자인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EU에서 허가되는 기준보다 훨씬 배출량이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 현안 중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금 입지선정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시 자원회수시설 또한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배출량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마게르바케 열병

합시설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 회수시설 건물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넛모양 스모크링처럼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바꾸는 아이디어 등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펜헐이라 불리우는 열병합발전소는 깨끗한 시설에 대한 인식과 산이 없는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스키장과 인공암벽, 하이킹 구역 등 조성한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큰 경사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과 직원들 역시 그거를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요. 걸어서 올라가서 아이들은 스키를 타고도 내려올 수도 있고,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크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좋은 경관을 조성해 주고 있었어요.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쪽 가면 스웨덴으로 연결된 해저터널이 있는 곳입니다.

코펜헐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장 깨끗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원 회수시설 설계 시 콘셉트를 좀 명확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는 앞서 말씀드린 스키장이나 등산로를 건설한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순천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을 상상할 수 없는 콘텐츠로 대중에게 개방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시설이 아닌 인기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피시립도서관입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세 건물로 이뤄져 있었는데, 신관의 서가들은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런 서가들이 이동 및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령별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특성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시립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이라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말피시립도서관은 룸, 층 개념보다는 하나의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생후 6개월부터 방문을 할 수 있고, 열람실과 아이들 전용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관은 통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을 실내로 이끌어들이는 설계가 독특해 보였고요. 단순하게 열람 기능을 하는 것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서관의 도시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도서관 설계 시 정원에서 책을 읽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미학을 고려한 설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기능 면에서도 도서관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아이들을 위한 싱크대 비치나 유모차 보관장소, 부모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배치나 그런 것도 인상 깊었고, 우리 순천시도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말피시립도서관은 그 도시의 특성이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이걸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관을 붙여서 짓는 것이 굉장히 조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위원장 000 예. 핵심 위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bo01지구인데요. 말피의 눈물이 있는 주거빌딩으로 말피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에볼루션시티인데요. 미디어에볼루션시티는 가장 중심 지역에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스타트업에 핵심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에볼루션시티는 약 직원 100여 명 규모의 큰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현재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큐레이터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 사례를 기업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비결은 말피대학교와 기업, 지차제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권 이동에 따른 기존 상권의 침체나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연계성 강화를 통한 동네상권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터닝토르소는 말피의 눈물인 골리앗 크레인이 사라진 말피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인데

요. 이 날 날씨가 좀 꺾어서 밑에 사진이 좀 안 보이는데..., 100%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체 난방과 전기 등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터닝토르소처럼 도시의 랜드마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시가 건축하는 공공시설 즉, 자원회수시설을 말피시의 터닝토르소처럼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건축물 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홍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bo01지구는 재생 가능한 자원,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정보기술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주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빗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bo01지구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의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 지붕에서 빗물이 내려오는 수로를 만들어 지하탱크에 모아 다시 생활용수화하고, 싱크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시 순천의 장점인 정주여건을 살리는 주택단지 건설 등이 이뤄진다면 순천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강점을 부각시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도시로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예테보리시립미술관인데요. 문화청이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으로 파블로 피카소나 빈센트 반고흐와 같은 거장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반고흐의 그림을 직접 보는 영광을 느꼈습니다.

예테보리시립미술관은 거장들의 작품 전시로 관람객을 유인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꼭 거장뿐만 아니라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시립미술관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었어요.

순천시는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테보리처럼 지역 작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 또는 순천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 등이 전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책에서 한 번씩 하는 문화의 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책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아쉬운 게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작가들이 오면 그 동화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지만 오히려 우리 그걸 쉽게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은 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 시립도서관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과학관입니다. 스웨덴 국립과학의 센터이자 과학, 기술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위한 공간인데요. 총 7층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인기가 많았고요. 실제로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것을 체험하고 있는지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잡월드의 경우에는 실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주여행 같은 경우도 국립과학관처럼 실제로 우주를 걷는 느낌 등 체험을 통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면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잡월드 청소년관은 어린이관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방학 중에는 국립과학관처럼 별도의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피성박물관인데요. 국보급 문화재이지만 그렇게 규모가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화재였는데요. 우리시의 경우 순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개별적 박물관이나 역사관, 사료관 등은 있지만 이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내 사료전시관이나 순천만국가정원 역사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등 박물관이나 사료전시관 등 전시 콘텐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린홀먼사이언스파크는 과학단지인데요. 기업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시와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고요. 그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시가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

제를 협업하고 해결하는 것이 인상이 깊었고요. 순천시의 경우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학과도 지금 3개 대학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적극 협력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걸림돌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단지를 우리 원도심에 비어있는 건물로 활용해 달라는 것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제안사항입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타워 카페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컴퓨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구역별 카페라든지 공공건물 등을 활용해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코펜하겐은 자전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좋고 걷기도 좋은 도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고 광장에는 휠체어나, 이렇게 지금 유승현 의원님인데요. 이런 강가에 옆에 있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모차나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깔끔하게 깔아놔 가지고 다니는 데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떨어지는 우수관로에 거름망을 설치해 가지고 낙엽이나 쓰레기 등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구요. 공원에 아까 있는 평평한 곳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많이 있지만 유모차나 자전거, 휠체어 등 쉽게 위아래로 오르기 좋게 레일이 설치돼 있었구요.

그리고 말피 미디어에볼루션시티 주차라인은 전체를 실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주차공간이라는 것만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도 이 부분 반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이걸 아직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마게르바케 열병합발전소 내 벽면을 활용한 비상약품이구요. 순천시 산하 주요 공공시설에 벽면을 활용해서 비상약품을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안전히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그리고 분리수거통도 특

이하게 돼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 순간을 경험하는 6박 9일간의 연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막상 가서 보고 느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저는 이번 연수에 유럽을 처음 가봤습니다. 해외를 처음 나가본 거였는데요. 그런 설레임보다는 그냥 그저 더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졌고, 우리 이 선진사례들을 우리 순천시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며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는 일류순천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는 뜻깊은 연수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아주 알차게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팬썰입니다.

○위원장 000 정광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위원장 000 우선 맨 앞에 보면 덴마크 시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코펜하겐 시청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코펜하겐 시청사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000 예, 코펜하겐이라고 해야....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그렇습니다. 코펜하겐 시청사입니다.

○위원장 000 1번이라, 예.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제가 오타를 좀, 6박 9일간의 PPT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담고 싶었는데 요약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000 말피하고 코펜하겐은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까, 혹시?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배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대부분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위원 000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위원 00 처음에 나가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니 그게 지금 화장실 갈 때하고 나 올 때하고 지금 다른 것입니까?

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원래 당초 위원장님께서 가실 때는 보고를 드렸지만,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 첫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었고 제가 위원장님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 번 갔다 온 중진의원님보다는 초선의원이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신선하고 정제되지 않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양해만 해주신다면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000 본인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위원 000 의욕이 상당히 앞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합니다.

○위원 00 그리고 다녀오서 가지고 순천시에 접목할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일단은 지금 7월 업무보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7월 업무보고 때 각자 아마 우리 다녀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 맞는 것들을 분류를 해서 각 집행부에 건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필요하다면 꼭 본인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은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정원 박람회라는 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업무보고와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상임위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000 다음부터는 보고는 초선의원이신 우리 정 의원님께서 하시되, 위원장님이 옆에 계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저는 다녀온 후기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아까 자부담을 또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32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자부담은 129만 원을 해서 저희들은

정말 6박 9일의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비행기 14시간씩, 12시간씩 타고 공무수행이라서 그렇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여행 안 갑니다, 해 보니까요. 제가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걷고 전부 걷는 거예요. 차로 이동할 거리가 별로 안 돼 가지고..., 보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하는 공무여행이라는 게 그냥 놀러가는 여행이 아니다, 난생 처음 저도 2만 보 이상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기이고요.

이제 덴마크 같은 도시는 도시 자체가 오래된 도시라서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저희들 장애자가 한 분이 지금 유승현 의원님이 따라가셨는데, 같이 가셨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거기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는 건물, 오래된 건물이라서 약간 도로 울퉁불퉁한 돌같은 도로인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건 해 뒀지만,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불편했고 우리 유승현 의원님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공무의 책임감을 갖고 가는 여행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000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000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일정이. 6박 9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6박 9일을 잤어요. 거기서 자부담을 130만 원씩 했고 이걸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보는 눈들이 좀 달라지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000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의 연수일정도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위원 000 그렇죠.

○위원장 000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회는 그래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라도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000 예, 맞습니다. 제가 다녀온 후기를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000 예. 또 다른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위원 000 예, 없습니다.

○위원장 000 말씀하실 건가요?

예, 000 위원님.

○위원 000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결과들을 공유해 주실 기회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공무국외에 대한 필요성이나 다녀오신 뒤에 이렇게 직접 보고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알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결과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어떤 통로들을 만들어서 자꾸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고 오서 가지고 시에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도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지 시에다가도 그런 방향의 요구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린 내용들을 우리 의정홍보팀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거나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저작권 문제나 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려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마냥 의원들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냥 관광 목적의 해외를 갔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방금 존경하는 000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하고 왔다는 것을 약 1%라도 더 느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제가 귀국할 때 캐리어를 비행기에 못 실었습니다. 그 이유가 캐리어에 제가 책을 많이 담아 가지고요. 제가 유럽에서 책을 또 많이 받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000 여러 가지로 자료도 잘 만드셔서 하신 것 같고, 000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내용들도 많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